

니시 신엔(서쪽 정원)

정원 중앙에 있는 밧코 연못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이든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니시 신엔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번성했던 다도부터 조원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선종(禪宗)에서 착안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절묘하게 놓인 삼존석(三尊石, 불교의 삼존불과 같이 중앙에 큰 돌을 두고 양 옆에 두 개의 작은 돌을 배치한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연에서 휴식을 얻고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수풀로 둘러싸인 조용한 분위기의 정원입니다.

정원을 산책할 때는 평평한 바위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솔길 옆 평평한 바위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평평한 바위를 따라 호숫물이 가까이에 흐르도록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정원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언뜻 보기엔 자연스레 그곳에서 형성되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정 방향으로 방문객의 시선이 향하도록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와 나뭇가지가 수면에 비친 모습이나 밧코 연못 맞은편 정원수에 곁게 서 있는 3 개의 바위는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을 의미합니다.

6 월에는 밧코 연못 맞은편에 창포꽃이, 물 위에는 수련꽃이 핍니다. 정원에 있는 약 200 여 종의 창포꽃은 성장할수록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꺾여지기 때문에 3 년에 한번은 뽑아내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